



# 성화식품 해이슬농가협의회 총회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소 : 삼정부여유스호텔



성화식품(주)

## 성화식품(주) 해이슬농가협의회 총회 개최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다짐

성화식품(주) 해이슬농가협의회(회장 현의택)는 지난 11월 29일 충남 부여 소재 삼정부여유스호텔에서 사육농가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사와 농가간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화식품(주) 이창우 대표이사과 임직원,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심순택 부회장, 충남도의회 유병기 의원을 비롯 성화식품 계약사육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1기 김훈경 농가협의회장이 현 현의택 농가협의회장에게 농가협의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 이창우 대표와 현의택 협의회장이 상생협약서 채택 후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 성화식품 해이슬농가협의회 제2기 운영위원



▲ 내외빈들과 함께한 농가협의회 총회 축하 케익커팅 후 '성화 상생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건배제의가 있었다.

성황리에 치러졌다.

성화식품(주) 농가협의회 회원들만 참석한 1부 농가협의회총회 행사에는 총 84개 농가 중 64농가 97명이 참석해 7개 권역별로 구성된 각 지부 및 운영위원 소개, 2013년 회칙개정안에 대한 인준 절차가 있었으며, 총회 마지막 시간에 현의택 농가협의회장의 성화식품(주) 해이슬농가협의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현의택 농가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성화식품 해이슬농가협의회는 성화식품과 상생의 틀을 확고히 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며,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상호 분

쟁 소지가 있을시 대표 또는 대리하여 협의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금번 위탁수수료도 상호 협의하에 조정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당 협의회에 대해 근거없이 매도하거나 해이슬농가협의회를 부정, 명예를 손상시켰을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부 행사에서 현의택 농가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사는 품질좋은 원재료를 농가에 공급해 주고 농가는 품질좋은 닭고기를 생산해 주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성화식품 전체농가



▲ 계약사육농가 해이슬진지 견학비용 증정식

의 평균 생산지수 330, 육성률 98%, 농가회 전수 6회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와 농가가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창우 성화식품(주)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 1기 총회에서 품질좋은 원자재 공급 및 사육회전수 보장을 약속했는데 상위 25%농가 평균 생산지수가 9월 364, 10월 377, 평균 사육회전수 6.1회전으로 어느 회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와 농가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 관계를 통해 항상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일용 사장 등 생산성이 우수한 7농가에 대한 시상과 함께 백봉현 사장 등 장기근속농가에 대한 시상, 그리고 공로패 증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농가와 회사가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의 상생협약식과 함께 2012년에 이어 올해도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회사에서 부부동반



▲ 공식행사 후 흥겨운 시간을 갖는 농가사장님들

해이슬진지 견학을 약속했으며 견학비용 3,000만원에 대한 증정식을 가졌다.

## 농가협의회, 7개 지부 9명 운영위원으로 구성

성화식품 해이슬농가협의회는 7개 지부 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9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의택 사장을 제2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인 지부장은 각 지부별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1지부장 이성우 사장, 2지부장 이대현 사장, 3지부장 장두희 사장, 4지부장 안효두 사장, 5지부장 전동석 사장, 6지부장 정정환 사장, 7지부장 황호연 사장과 사무국장에는 박흥수 사장이 선출되어 운영위원으로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는 1지부장인 이성우 사장이, 농가협의회 부회장은 7지부장인 황호연 사장이 선출되어 지부장과 겸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img alt="Seonghwa Food Co., Ltd. logo" data-bbox="615 858 640 873"/>